

통일, 새로운 백년을 열다

The Peace Foundation
Annual Report 2013

통일, 새로운 백년을 열다

펴낸 날
2014년 5월 30일
Published on May 30, 2014

펴낸 곳
재단법인 평화재단
Published by The Peace Foundation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3-2 (137-878)
1623-2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137-878)

연락처
T 82-2-581-0581
F 82-2-581-4077
E-mail staff@peacefoundation.or.kr

Home Page
www.peacefoundation.or.kr

Contents

I. 인사말	04
II. 평화재단 소개	06
III. 2013 사업별 활동보고	08
1. 평화연구원	10
1) 전문가모임	12
2) 전문가포럼	14
3) 심포지엄	22
4) 현안진단	26
5) 정세토크	28
2. 평화교육원	30
1) 평화리더십아카데미	32
2) 여성리더십아카데미	36
3) 청년리더십아카데미	42
4) 열린아카데미	50
5) 기획강좌	52
- 엄마수업	52
- 시니어아카데미	54
3. 평화운동	56
1) 청년포럼	58
2) 희망세상만들기 강연회	70
3) 해외순회강연	76
4) 평화통일 네트워크	80
- 종교인 모임	80
-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위원회	82
IV. 재정보고	83
V. 함께하는 사람들	84

2013 평화재단 연례보고서를 펴내며

2014년 새해 벽두부터 한국 사회의 담론은 단연 '새정치'와 '통일'이다. 기존 정당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이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국민적 갈망으로 표출되고 있다. 또 그동안 통일에 냉소적이었던 일부 언론들이 앞다퉀 통일의 비전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풍경이 아직은 낯설기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용어는 향후 상당기간 한국 사회의 모든 분야를 관통하는 거대담론의 중심축이자 사회적 화두로 자리매김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난 2013년을 되돌아보면 남북 관계는 불안함 속에서 유지되는 불안정한 평화였다. 북핵과 한미연합훈련 등의 안보문제는 물론이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경제협력 분야와 탈북자와 이산가족 상봉 등 인권 사안에 이르기까지 남북이 대화와 협력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평화재단은 남북관계의 부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대북 정책을 제안해 왔다. 격주로 나가는 현안진단을 통해, 시기별 중요한 외교안보 이슈들은 전문가 포럼을 통해, 상하반기 두 차례의 심포지엄은 비록 민간 차원이지만 통일국가 건설의 청사진을 제시해 보기도 했다. 우리의 여러 제안들이 일관되게 견지한 것은 단연코 남북 7천만 전체 주민의 평화와 행복이었다. 또한 그 제안들은 통일로 가는 과정, 혹은 수단이었으며, 통일 사회를 이루는 구성요소들이기도 했다.

한편, 우리 사회는 7천만 겨레의 이익과 행복을 보장할 통일사회를 만들어 낼 역량이 여러모로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북한은 이미 통일의 비전도, 통일을 주도할 힘도 상실한 것으로 보이지만, 남한 역시도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통일 사회를 창조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후진적 정치, 양극화 심화, 민주주의의 퇴보, 남남 갈등으로 점철된 현재의 한국 사회가 통일 국가의 미래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분산된 국가 역량을 결집시켜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사회, 또 이를 견인해 내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상하반기 각각 2차례씩 진행된 평화리더십·여성리더십·청년리더십 아카데미를 통해 수강생들은 자신의 삶과 통일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에 눈뜨면서 개인적인 삶에만 매몰되었던 자신을 발견하고 통일 사회를 위해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는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다 광범위하고 대중적인 모임을 만들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사그라져가는 통일 기운을 되살리는 움직임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통일·통합의 리더십을 가장 필요로 한다. 다양한 지역·연령·계층·집단의 요구는 수렴되지 않은 채, 물리적 대립과 이념적 갈등으로 엄청난 비용을 발생시키며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또 이는 북한 문제에 이르러서는 극에 달해 합리적 결론 도출은 점점 불가능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바로 그 점에서 통일은 우리 사회 갈등 해소의 시발점이자 종착역이기도 하다. 통일로 가는 과정이 곧 우리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며, 통일에 대한 비전 없이는 우리 사회의 모순도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모임과 실천 활동, 국민들의 각성과 결집된 정치세력,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대북통일정책, 한국 사회에서 진정한 '새정치'는 이러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재단은 2013년 한 해를 부지런히 달려왔다. 통일 정책 연구와 제안, 통일 사회에 필요한 리더십 교육, 대중적 통일 운동 조직과 사업 방향 모색, 종교사회인사들의 남남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활동 지원 등.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구진, 강사진, 활동가, 봉사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아직 평화재단의 활동은 미약하고 우리사회의 갈등의 골은 뿌리 깊으며, 한반도 주변 정세는 여전히 통일을 낙관하기 어렵다. 세간에서 말하듯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이제 구호로 그쳐서는 안 된다. 준비하는 국민의식, 실천하는 국가정책이 있을 때라야 통일이 현실화 될 것이다. 2013년 한 해, 재단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한 분 한 분에게 지면을 통해서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4년 평화재단은 보다 풍부한 정책 생산, 리더십 교육, 시민운동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린다.

2014년 5월 평화재단

평화재단은 이런 평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평화재단은

여러 가지 꽃들이 모여 하나의 화단을 이루듯이
각자의 다양한 개성이 모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여
시기와 질투를 뛰어넘어 사랑을
대립과 경쟁을 뛰어넘어 화합을
투쟁과 전쟁을 뛰어넘어 평화를 이루는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고자 합니다.

평화재단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함으로써
서로 다름이 차별과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고
서로 다름이 다양성의 풍요로움이 되어
이 땅에 평화의 꽃을 피우고자 합니다.

평화재단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주요 목표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한반도는 일제 강점으로 식민지배의 고통을 겪었고
해방 직후 강대국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또한 동서냉전의 희생양이 되어 전쟁을 치르면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반세기가 넘도록 서로 적대관계 속에 체제경쟁을 하면서
많은 분쟁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평화재단은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해소하고
남과 북 사이의 평화정책과 통일을 주요 목표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핵문제로 고조된 한반도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전협정 이후 계속되어온 불안정한 휴전체제를 전환시켜
한반도에 전쟁 없는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둘째, 남북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지난 시기의 적대관계 속에 생긴 상처를 씻고
교류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동북아시아 주변국의
이해를 해치지 않고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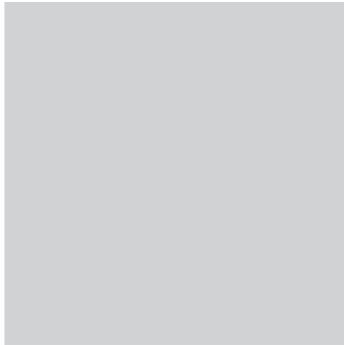
그리고 평화재단은 민간재단으로서
특정 사상이나 이념,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
이 땅에 전쟁과 구조적 폭력을 종식시켜
평화의 세상을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평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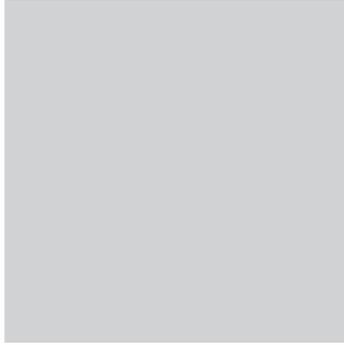
- ① 전문가모임
- ② 전문가포럼
- ③ 심포지엄
- ④ 현안진단
- ⑤ 정세토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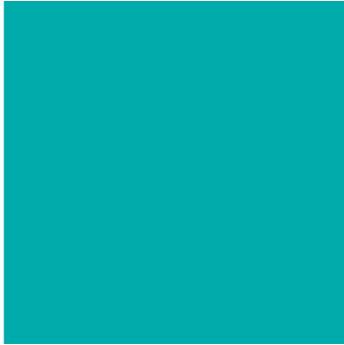
평화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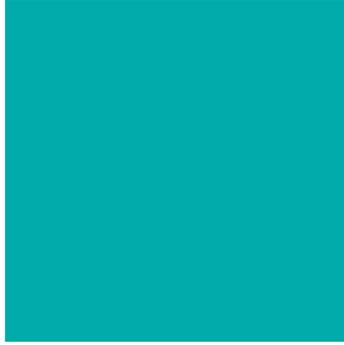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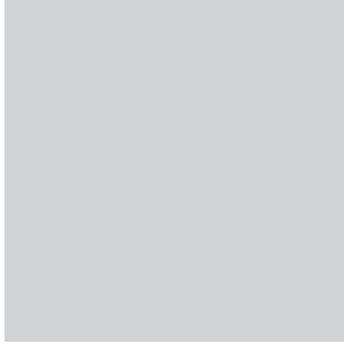
- ① 평화리더십아카데미
- ② 여성리더십아카데미
- ③ 청년리더십아카데미
- ④ 열린아카데미
- ⑤ 기획강좌
 - 엄마수업
 - 시니어아카데미



평화운동



- ① 청년포럼
 - 청년학교
 - 새로운 백년 북콘서트
 - 새로운 백년을 열어가는 현장탐방활동
 - 새로운 백년을 열어가는 해외탐방활동
 - 청년콜로키움
- ② 희망세상만들기 강연회
- ③ 해외순회강연
- ④ 평화통일네트워크
 - 종교인 모임
 -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위원회



평화연구원

2013년도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연 대북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고조되면서 시작된 한 해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고 이름 지어진 정책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 것인지, 이전 정부와 어떻게 다른지 등등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평화연구원에서는 2013년도 첫 전문가포럼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첫 단추가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열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긴장된 가운데, 중국과 미국 등 주변국과 어떻게 공조를 해나가야 할지도 주요하게 살펴볼 현안들이었다. 게다가 2013년은 정전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다.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남북한 대치 상태에서 평화의 문제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상반기를 결산하는 심포지엄에서, "한반도 핵 위험 시대와 평화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과연 우리에게 평화는 어떤 것인지, 평화비용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었다.

하반기에도 북한의 핵문제는 주요한 화두였다. 게다가 일본의 우경화가 동북아의 주요 갈등 기제로 떠오르면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과연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한국의 외교는 지금 어디에서 있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연이은 전문가포럼과 현안진단을 통해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뤘는데, 사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자체가 답답한 심경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1년이 지나도록 교착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답답한 남북현실을 반영했던 것이다. 그러나 평화연구원은 2013년 한 해를 결산하는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 "한국 경제의 돌파구, 남북관계 정상화에서 찾는다"는 주제를 통해 희망의 끈을 다시 이어나갔다. 우리 내부의 경제 위기를 풀어갈 해법도 결국 남북한 관계 정상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돌아보면, 2013년은 새로운 길을 찾는 중에 더 거센 도전들이 밀려드는 형국이었다. 시대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는 2014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평화연구원은 냉철한 눈으로 현실을 진단하되 긴 안목으로 비전을 찾고 제시하는 소임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2013년 한 해 동안 사계 전문가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기여에 감사 드리고, 2014년의 더 생동하는 활약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전문가모임

평화연구원에서는 2013년 6개 분과의 전문가 모임을 진행했다. 5개 분과는 매달 1회 이상씩 모임을 통해 현안과 장기 과제들을 토론하는 세미나를 진행했다.

북한현실모임에서는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 내부의 동향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여러 정보를 교류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중 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등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공식 발표된 내용의 배경과 다른 이야기들까지 종합해 다음을 전망해보는 시간들이었다. 북한 인권 모임에서는 북한 내부의 인권 문제 실태와 처우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구체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북한이탈 주민들의 실상과 처우, 그리고 범죄 실태 및 대책 등에 대해서 듣는 시간도 가졌다. 평화 체제 모임에서는 분단 체제에서 벗어나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들과 외교전략, 국제협력 방안 등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전략적 태도에 대해 토론하는 등 평화 체제의 확립을 위한 연구를 이어갔다. 평화 법제 모임에서는 북한인권법과 북한의 입법이론 등을 살펴보았다.

2013년도에 새롭게 결성된 신진전문가모임에서는 젊은 연구자들이 각자 관심사를 공유한 뒤 주제별로 하나씩 접근해보는 시간들을 가졌다. 한 연구자가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3회 연속 발표하고 토론하면서 다음 연구 주제를 도출하는 새로운 방식이었다. 다만 북한 개발 모임은 보고서를 발간한 후 다음 의제를 개발하기까지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북한 현실의 이해와 연구 전문가모임

일시	내용
2013. 02. 13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정세 전망
2013. 03. 20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에서의 북한 동향
2013. 04. 23	한미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 전망
2013. 05. 30	미중 정상회담과 북한 최근 동향
2013. 07. 10	최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2013. 09. 01	최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2013. 10. 01	미국의 대 한반도 정세와 최근 남북관계 분석

남북화해와 북한인권개선 연구 전문가모임

일시	내용
2013. 01. 15	중국 내 탈북자 실상과 처우
2013. 02. 26	김정은 체제와 북한의 주민통제법제 정비
2013. 05. 31	탈북자, 국민 그리고 난민
2013. 11. 05	북한이탈주민 범죄 실태 및 대책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방안 연구 전문가모임

일시	내용
2013. 01. 24	2013년 모임 주제 논의
2013. 02. 19	한반도의 '신 세력균형' 과 '다자적 통합' : 안중근 '동양평화론' 의 사상적 배경을 중심으로
2013. 05. 24	북한 급변시대 대처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
2013. 06. 25	2007 남북정상회담 녹취록에 대한 토론
2013. 08. 27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경쟁과 한국의 지전략
2013. 11. 12	중추적 중견국가로서 한국의 외교전략

통일을 위한 평화법제 연구 전문가모임

일시	내용
2013. 02. 25	2013년 모임 주제 논의
2013. 05. 31	북한인권법의 현안과 쟁점
2013. 07. 04	한반도 평화협정의 쟁점 및 과제
2013. 11. 25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제

신진 전문가 모임

일시	내용
2013. 02. 21	최근 한반도정세 및 새로운 연구 방향 모색
2013. 03. 11	연구위원 각 개인의 연구과제 및 관심분야 발표
2013. 05. 06	각 연구위원의 관심 주제 발표 및 논의
2013. 07. 22	'한반도 통일의 첫 걸음'
2013. 09. 16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구동독지역 적용에 관한 연구와 'Ideas Institutions and Organized Capitalism'
2013. 10. 15	한국경제의 구조적 과제와 대안
2013. 10. 28	한국경제 : 산업과 기업구조

전문가포럼

제59차 전문가포럼 | 2013년 3월 19일 |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껏 긴장이 고조된 시점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세상의 이목이 집중됐다. 새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전 정부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궁금해 했던 것이다. 평화연구원에서는 이런 일차적인 관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과연 남북한 위기 국면을 어떻게 돌파해가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작동시켜 나가야 할지 지혜를 모으고자 2013년도의 첫 번째 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첫 단추가 중요하다' 라는 주제가 그것이다.

- 주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첫 단추가 중요하다'
- 사회** 박종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발표 1** 북한 핵실험 정국 타개를 위한 대안과 쟁점
이정철 (송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발표 2** 갈등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의미와 도전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발표 3** 어떤 '신뢰', 어떤 '프로세스'여야 하는가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 발표 4** '신뢰프로세스'와 '신뢰외교', 한반도 주변정세와 한국의 외교적 선택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 미주연구부장)



제60차 전문가포럼 | 2013년 4월 15일 |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향후 10년을 이끌어 갈 시진핑 체제의 지도부 구성을 완료했다. 시진핑 시대 10년은 중국과 세계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거대한 도전과 변환의 시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급격하고 불확실한 변화의 중심에 선 동아시아 그리고 한반도가 어떻게 나아갈지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중국 시진핑 시대를 전망하고자 했다. 급부상한 중국이 시진핑 시대를 맞아 어떻게 변화할지, 시진핑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이고 그에 따른 도전들이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그에 따른 우리의 전략에 대한 토론이 오갔다.

- 주제** '중국의 꿈'을 향한 시진핑 시대의 도전과 선택
- 사회** 김형기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원장)
- 발표 1** 시진핑 시대의 도전과 과제 - 중국 내부 현안을 넘어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발표 2** 중국의 공세외교와 동아시아 질서 변동
김홍규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발표 3** 시진핑의 중국, 대북한 전략은 변할 것인가?
최명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라운드 토론** 시진핑 시대의 도전과 선택,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전가림, 김홍규, 최명해



제61차 전문가포럼 | 2013년 5월 14일 |

5월,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람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남북한이 대치상황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회담의 논제를 분석하고 과제와 향후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61차 전문가포럼에서는 한미정상 회담에 대해 한국의 첫 여성대통령과 미국의 첫 흑인대통령의 첫 회담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협정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한미동맹에 비해 분단 상황 속 평화체제의 비전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

- 주제** 한반도 안정화, 한미정상회담 이후가 중요하다
- 사회**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발표 1**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 발표 2** 한반도 안정화의 조건과 한국의 선택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
- 토론 1**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토론 2** 전봉근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장)



제62차 전문가포럼 | 2013년 9월 10일 |

오래도록 굳게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개성공단 실무회담 타결을 계기로 조금씩 해빙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는 수면 아래로 가리앉은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회담 재개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북핵문제 해결을 전망하고자 62차 전문가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남북관계의 활로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대화의 국면 상황을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이 자리에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동시에 6자 회담을 통해 핵문제 해결에도 힘써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 제기되었다. 남북관계와 6자 회담의 두 바퀴는 함께 굴러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 주제** 개선되는 남북관계, 이제 핵문제 해결이다
- 사회**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
- 발표 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북한 핵문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표 2** 개선되는 남북관계, 향후 북핵문제 해결의 전망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토론 1**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토론 2** 문순보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연구위원)



전문가포럼

제63차 전문가포럼 | 2013년 10월 15일 |

올해 정전 60주년을 맞아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선행 조건과 과제를 도출하고, 실현가능한 로드맵을 논의하고자 63차 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 63차 포럼에서는 각 시기별 DMZ 활용 방안 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발표와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기존의 보전론과 개발론의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한반도 전체를 고려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각 단계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 남북한 군사분계선 접경지역의 관리, 그리고 평화

- 사회** 김영봉 (한반도발전연구원 원장)
- 발표 1** 남북 접경지역의 현안과 쟁점 : 서해에서 DMZ까지
박은진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발표 2**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접경지역 발전 방안
홍순지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수석연구위원)
- 토론 1** 손기웅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토론 2** 문성목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략연구위원)



제64차 전문가포럼 | 2013년 11월 5일 |

일본의 우경화 행보가 연일 계속되고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동북아 안보 지형에 지각 변동이 예고되었다.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동북아 평화협력을 구상하던 우리의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되면서 현명한 전략적 선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이에 “일본의 우경화와 미일동맹 강화,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이라는 주제로 64차 포럼의 자리를 마련했다. G2시대 속 미국과 중국,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의 우리의 전략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아베 정권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에 숨은 배경과 의도, 미일동맹의 핵심에 대해 다루는 것과 동시에 이를 중국의 시각에서 다루어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제 일본의 우경화와 미일동맹 강화,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 사회**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표 1** G2 시대의 미중관계와 일본의 보통군사국가화 정책 평가 :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영향
박영준 (국방대학교 안정보장대학원 교수)
- 발표 2** 미일동맹 강화와 한국의 딜레마 그리고 전략적 선택
최중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토론 1** 최희식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토론 2** 정성윤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 토론 3**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비공개 좌담회 | 2013년 6월 11일 |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회담에서 한반도 의제가 어떻게 다루어질지, 동북아시아에서의 세력 재편 과정에서 우리의 운명이 또 한 번 강대국의 손에 맡겨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시각들이 많이 있었다. 미중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변화할 것인지 향방을 가늠해보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논의하고자 평화연구원에서는 비공개 좌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특별한 형식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보다 솔직하고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비공개 좌담회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조금씩 미묘하게 변화하는 양상과 미중의 밀월 관계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또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사이에서 물러서는 3자적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 두 쪽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를 쥐어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었다. 동시에 남북 역시 물밑접촉이 필요하며, 남북 실질 상호 인정 등 지금 정부에서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을 달성해야 한다는 중론이 모아졌다.

주제 미중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의 향방

사회 길정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패널 김흥규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오승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이 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이영훈 (SK경제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이정철 (송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두현 (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협력이사)

심포지엄

2013년 평화재단 심포지엄 | 2013년 6월 19일 |

한반도 핵 위험 속 국민 안보인식이 변화하고 불안정한 평화가 지속되는 시대상황에서, 평화비용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과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에 대해 논의하고자 상반기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발표와 토론에서는 분단체제는 곧 민족 생태계의 파괴이며 이와 같은 상황이 한국 사회의 신뢰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남북관계 개선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따라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내적 프로세스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평화비용은 소모적인 비용이 아닌 미래를 향한 생산적 비용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350명 가량의 청중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열중하는 가운데, 패널들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며 마무리 되었다.

주제 한반도 핵 위험 시대와 평화의 조건

일시 2013년 6월 19일 (수)

장소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프로그램	사회	발표 1	발표 2	발표 3	발표 4	토론 1	토론 2	토론 3	토론 4
	김정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최근 북한의 핵 위협과 한반도 리스크의 실제 고수석 (한화생명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불안정한 평화의 지속과 국민 안보인식지형의 변화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사무국장)	평화비용에 대한 인식 전환: '소모적 비용'에서 '생산적 비용'으로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북한 핵 보유와 불안한 남북관계, 평화의 조건은 무엇인가 고경빈 (평화재단 이사)	정낙근 (여의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엄상윤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성윤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심포지엄

평화재단 창립 9주년 심포지엄 | 2013년 11월 14일 |

2013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고들 말한다.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는 날로 심각해질 뿐이다. 다수의 서민이 소수의 재벌과 대기업을 먹여 살리는 불평등구조도 심화되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 즉 양극화 현상은 도무지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국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 성장 동력을 잃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애기다. 파이가 커질 수도 없고, 있는 파이를 더 공정하게 배분할 수도 없으니 없는 사람만 더 힘들어지는 답답한 현실이다. 하지만 평화연구원에서는 우리에게 아직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이 남아 있다고 보았다. 바로 '남북관계 정상화' 라는 희망이다. 이에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토의하고자 창립 9주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여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평화를 창출하고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남북관계를 평화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경제와 한반도의 안정과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과제를 동시에 확인한 시간이었다.

주제 한국 경제의 돌파구, 남북관계 정상화에서 찾는다

일시 2013년 11월 14일 (목)

장소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프로그램

- 사회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발표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연동전략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발표 2 한국경제의 활로, 새로운 북방정책에서 찾는다
추원서 (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소장)
- 토론 1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
- 토론 2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3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토론 4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현안진단

2013년, 현안진단 위원들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한반도의 현안을 격주로 다루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을 때 현안진단은 남북회담 개최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발동을 제언했고, 개성공단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원 포인트 남북회담'을 촉구했다. 지난 1년 간 현안진단에서는 각 시기별 현안을 짚으며 그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방안을 모색해왔다. 현안진단은 시의와 사안에 맞지 않는 소모적 정치 논쟁에 일침을 가했고, 3월 출범한 새 정부에 한반도 위기를 풀고 남북 당국회담 개최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을 했다.



호수	발행일자	주 제
67	2013.02.05	핵시대, 운명의 시계, 그리고 북한 핵문제
68	2013.02.19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제부터 시작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부처-20
69	2013.03.05	'하면 된다'와 대북정책의 만남
70	2013.03.19	휴전 60년, 개성공단 10년 그리고 새 정부의 출범
71	2013.03.29	우리의 시축으로 시작된 한반도 게임, 북한은 화답하라
72	2013.04.16	개성공단문제 다들 '원 포인트 남북회담'을 열라
73	2013.05.01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위기를 풀자
74	2013.05.14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는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달렸다
75	2013.05.28	'한반도 평화'의 의제를 선정하라!
76	2013.06.09	탈북자 인권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자'
77	2013.06.11	남북당국회담의 성공을 위하여
78	2013.06.26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함께 가야 한다
79	2013.07.08	다시 열리는 대화의 문, 한중관계 발전을 교훈으로 삼자
80	2013.07.19	정전 60년, 평화가 간절하긴 합니까?
81	2013.08.06	한반도 주변정세의 불안정화, 남북관계 안정이 급선무다
82	2013.09.03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그리고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를 동시에 가동하자
83	2013.09.27	개성공단 짚고, 금강산 가는 길 찾기
84	2013.10.07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회이다
85	2013.10.28	북한이 내민 손을 잡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야
86	2013.11.11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프로세스"의 대북정책
87	2013.12.02	대통령이 진짜 묵과해서는 안 되는 것들
88	2013.12.17	장성택 처형 이후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가?

2013년 평화연구원에서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보다 대중적으로 가볍게 풀어내고자 '정세토크'를 진행했다. 상반기에는 '한미관계에서 한국의 미래를 묻다: 미국의 국가전략부터 북한 길들이기까지'라는 주제로 미국과 한미관계에 대해 다루었다. 상반기 정세토크에서는 미국 역사의 숨은 뒷이야기에서부터 한미관계의 역사,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과 북미관계, 미국과 중국이라는 G2 시대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자세와 새롭게 정립해나갈 한미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다.

이어 하반기에는 '한반도 통일, 중국과 대만 관계에서 배운다면?'을 주제로 남북관계와 여러모로 유사점이 많은 양안관계(중국과 대만 관계)를 다루었다. 경색 국면이었던 양안관계가 경제 교류 등을 통해 점차 사실상의 통일 관계로 나아가게 된 배경과 그 양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양안관계가 한반도 문제에 시사하는 바를 되짚는 시간을 가졌다.

정세토크는 전문가포럼이나 심포지엄과 같은 발표와 토론이 아닌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청중들의 의견과 질문을 더 자유롭게 받으며 객석과 한층 긴밀하게 소통하는 자리였다.



2013년 상반기 정세토크 | 2013년 6~7월 |

한미관계에서 한국의 미래를 묻다: 미국의 국가전략부터 북한 길들이기까지

6월 26일 미국의 국가전략과 우리가 살아가는 길

-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갈 길은
- G2시대, 미국과 중국은 적인가 친구인가
- 한국,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 사이에서

7월 3일 미국은 북한을 길들일 수 있는가

- 미국이 바라보는 북한의 모습은?
-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 간 빅딜설, 그 실체는
- 미국은 북한의 핵을 인정할 것인가: 비핵화냐 비확산이나

7월 10일 한미관계를 다시 생각한다

- 미국이 생각하는 세계전략, 한국은 어디에 서있나?
- 한국, 지는 해 미국과 살아가기
- 통일 한국의 미래, 미국의 역할을 생각한다

2013년 하반기 정세토크 | 2013년 10월 |

한반도 통일, 중국과 대만 관계에서 배운다면?

10월 7일 중국과 대만, 갈등의 역사

-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의 투쟁
- 공산당의 대륙 장악과 대륙에서의 국민당 축출
-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양안관계의 변화 등 양안관계의 역사에 대한 모든 것

10월 14일 양안관계의 오늘

- 대만이 안고 있는 대 중국 딜레마
-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들과 대만 본토 사람들의 인식 문제
- 중국의 만만디, 100년이든 1,000년이든 기다리면 된다?

10월 21일 양안관계의 미래, 한반도 문제에의 시사점은? (특별 손님: 량잉빈 주한 대만대표부 대사)

- 대만에서의 통일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 대만과 중국의 통일은 이미 이뤄진 건가? 통일은 요원한 건가?
- 양안관계가 한반도 문제에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



평화교육원

2012년 대선 이후 더욱 심해진 한국사회의 남북갈등으로 한국사회는 당면한 여러 과제들을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하기 보다 좌표를 잃은 채 점점 위기로 치달고 있다.

국외적으로는 더욱 복잡해진 동아시아의 지형과 남북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가야할 길을 잃고 강대국에 휘둘리고 있는 한반도의 운명은 100년 전의 한반도가 처했던 현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한국경제성장의 동력이 침체되어 가는 가운데 사회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올 한해는 특히, 갑을 관계가 주요이슈로 부각되는 등 경제 불공정 문제가 드러나면서 김상조 교수의 '경제민주화'가 더욱 필요함을 느끼는 한 해이기도 하였다.

경제민주화와 함께 정치 민주주의의 후퇴는 이 시대의 정의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최상용 교수가 말하는 '정의는 중용이다. 사회구성원들이 추구하는 최소한의 가치를 합의하는 것, 법률평의 '갈등의 한국사회,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등의 메시지가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시기였다.

한국사회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 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백년을 바라보는 미래 비전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평화교육원은 리더십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러한 비전과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시발점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또한 윤여준 원장이 말하는 '새로운 미래의 리더로서 의식을 일깨우고,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가자들의 삶의 전환을 꾀하고자 하였다.

무한경쟁으로 내몰리는 시대, 자살률 1위,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현재, 아이들의 깊어만 가는 방향은 엄마들 스스로 과연 자녀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물음을 던지게 되었다. 이런 엄마들을 위한 교육의 수요는 더욱 높아만 갔다. 자녀들을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교육을 받는 것에만 치중하던 엄마들에게 진정 엄마로서의 삶은 어떤 것이며, 자녀와의 소통, 자녀를 위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자 하였다. 사회의 안정은 가정의 안정으로부터 시작되고, 가정의 중심에 엄마들이 있기에 엄마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래서 짧지만 5주간의 엄마수업이 시작되었다.

700만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퇴직, 이들의 퇴직은 급속도로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 또 하나의 고민이 되고 있다. 인생 100세 시대에 50대 후반의 퇴직은 남은 40~5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었다.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한 공동책임을 가지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지 않으면 안되었다. 고령화 시대 한국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리고 개개인은 어떤 삶의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살지를 시니어아카데미를 통해서 담고자 하였다.

평화리더십아카데미

평화리더십아카데미는 한국의 국가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민족의 통일과 인류 공동체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소명의식을 지닌 역량 있는 리더 그룹을 양성하고자 2009년 9월3일 평화리더십아카데미 1기를 개강하여 현재 9기까지 꾸준히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중심이 되어 참여하고 있다.

제8기 평화리더십아카데미

일시 2013년 3월 21일 ~ 6월 13일, 매주 목요일 19:00, 총 12주
참가자 전체 39명 등록, 36명 수료함

일정		주제 및 강사	
1주	03/21(목)	입학식	평화리더십아카데미가 가는 길
	03/22(금)~23(토)	입학워크숍	리더십특강 1 : 역사와 정치의 대화-“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 조민(평화교육원 부원장,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리더십특강 2 :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
2주	03/28(목)	국제정세	격랑 속의 동아시아, 한반도는 어디로? 송민순(前 외교통상부 장관)
3주	04/04(목)	정치 I	'中庸' 민주주의를 말한다 : 정의는 중용이다 최상용(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4주	04/11(목)	경제	경제민주화의 기본 방향과 정책대안 김상조(한성대학교 사회과학대 무역학과 교수)
5주	04/18(목)	국가전략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 가야할 길 김진현(前 과학기술처 장관,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6주	04/25(목)	여성	역사 의식과 정치 지도력 이인호(前 러시아 대사,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7주	05/02(목)	통합의 리더십	갈등의 대한민국,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
8주	05/09(목)	사회	'평화·환경·연대의 미래'를 위한 기획 김성재(前 문화관광부 장관, 연세대 석좌교수)
9주	05/16(목)	정치 II	한국 정당 정치의 구조와 개혁 방향 박찬욱(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0주	05/23(목)	국정운영	국정 운영의 '스테이트크래프트' 윤여준(평화교육원 원장, 前 환경부 장관)
11주	05/30(목)	라운드 테이블	진단과 대안 모색
12주	06/08(토) ~09(일)	졸업워크숍	신라의 삼국통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
	06/13(목)	수료식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수료증 수여)



평화리더십아카데미

제9기 평화리더십아카데미

일시 2013년 9월 5일 ~ 12월 5일, 매주 목요일 19:00, 총 12주
참가자 전체 63명 등록, 59명 수료함

일정		주제 및 강사	
1주	09/06(목)	입학식	평화리더십아카데미가 가는 길
	09/06(금)~07(토)	입학워크숍	<리더십특강 1> 시대인식과 리더십 윤여준 (평화교육원 원장, 前 환경부 장관) <리더십특강 2> 미래를 여는 새로운 역사관 조민 (평화교육원 부원장,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주	09/12(목)	정의	중용 민주주의를 말한다 : 정의는 중용이다 최상용 (前 주일대사, 고려대학교 명예 교수)
3주	09/26(목)	교육	창의적인 사회를 꿈꾸는 교육! 김진경 (前 청와대 교육비서관, 시인)
4주	10/10(목)	(대담)미래전망	[대담] 미래학자들이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미래 전망 서용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박세훈 (유엔미래포럼 한국대표부 사무총장)
5주	10/16(수)	(대담)지방분권	[대담] 지방자치시대, 지방분권의 길 안희정 (충남도지사) 황한식 (지방분권개한국민행동 상임의장)
6주	10/24(목)	국제정세	격랑속의 동아시아, 한반도는 어디로? 송민순 (前 외교통상부 장관)
7주	10/31(목)	사회통합	갈등의 대한민국,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법륜 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8주	11/07(목)	경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 김상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11/9(토)~10(일)	경주워크숍	신라의 삼국통일로 본 통일코리아의 전망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
9주	11/14(목)	창조	세상의 틀을 넘어 사고하기 박웅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10주	11/21(목)	정치	새정치를 향한 도전 안철수 (국회의원)
11주	11/28(목)	라운드테이블	변화를 꿈꾸는 상상력을 펼쳐라!
12주	12/05(목)	수료식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수료증 수여)



여성리더십아카데미

여성리더십아카데미는 여성들이 사회의식을 높이고, 연대함으로써 사회변화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공간으로 마련되었다. '나와 세상의 변화가 시작된다'를 주제로 30~50대 직장인,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삶의 전환기를 보내며 다른 삶을 모색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1년 9월, 1기를 시작으로 2013년 현재 5기를 마쳤다.

'통통한 여자들의 통통 뛰는 봄날'을 꿈꾸며 시작한 4기는 이금희 아나운서의 입학특강으로 유쾌, 발랄하게 시작되었다. 수강생들은 우희종 교수의 '생명에 대한 예의'를 들으며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와 '나'를 연결했으며, 법륜 스님의 중용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갈등과 서로 불신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화합하며 상생할 수 있는지 모색하였다. 팝아티스트 낸시 랭의 사회의 편견에 도전하는 삶을 경청하였고, 진중권교수와 유종일 교수의 강의는 현재 한국 사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었다. 윤여준 원장의 현재 한국 정치에 대한 강의는 여성이 자각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이 사회가 조금 더 행복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는 시간이었다. 인문학자 고미숙의 수료특강을 끝으로 봄날의 생동하는 기운이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는 과정이었다.

2013년 10월 시작한 5기는 여성의 재발견, 삶의 재발견, 시대의 재발견을 통해 내 속에 숨어있는 열정과 능력을 깨우는 시간이었다. 심리학자 문은희 선생님이 제시하는 '나'를 남편에게, 자식에게, 혹은 부모에게 투영하지 않고 객관화 시키는 작업은 매우 신선하였다. 박해천 교수의 '아파트로 발현되는 한국 사회의 욕망의 구조'와 김찬호 교수의 '내 욕망이 허구임을 깨닫는 순간'은, 우리의 삶과 사회의 속살을 돌아보게 만드는 시간이었다.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의 시간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와 함께 살아가야 할 인간에게 부과된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법륜 스님의 역사강의와 동행하는 경주 역사유적지 탐방은 한반도 통일의 염원을 꿈꾸게 만드는 시간이었다. 특히,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이 함께하는 <여성리더십아카데미>는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토론하고, 그것들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며 왜곡시키는지 공부하는 특별한 소통의 공간이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각 세대가 갖고 있는 '전환기'의 불투명성과 불안감이 <여성리더십아카데미>라는 공간에서 구체적인 희망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여성들이 개별적인 존재가 아닌 한국사회 안에서 서로 연결된 '나'로 인식전환을 하며 세대와 여성 그리고 사회와 연대하며 발걸음을 옮기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여성리더십아카데미

제4기 여성리더십아카데미

일시 2013년 4월 19일 ~ 6월 14일, 매주 금요일 14:00, 총8주
참가자 전체 30명 등록, 25명 수료

일정		주제 및 강사	
1주	04/19 (금)	입학식	나와 너, 우리 함께 나누다 이금희 (아나운서)
	04/19(금)~20(토)	입학 워크숍	여성리더십아카데미 즐기기 윤수경 교장
2주	04/26 (금)	생명	생명에 대한 예의 우희중 (서울대 수의학 교수)
3주	05/03 (금)	평화	갈등의 대한민국,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법륜 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4주	05/10 (금)	경제	경제 민주화가 희망이다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5주	05/24 (금)	문화	자유로운 영혼 낸시 랭 낸시 랭 (팝아티스트)
6주	05/31 (금)	정치	한국정치 - 5년을 바라보며 윤여준 (평화교육원 원장, 前 환경부장관)
7주	06/07 (금)	철학	세상을 읽는 시선, 파타피직스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06/08 (토) ~ 09 (일)	졸업워크숍	신라 천년을 통해 오늘을 배우다 법륜 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8주	06/14 (금)	수료특강	나의 운명 사용 설명서 고미숙 (고전평론가)



여성리더십아카데미



제5기 여성리더십아카데미

일시 2013년 10월 11일 ~ 12월 06일, 매주 금요일 14:00, 총 9주
참가자 전체 24명 등록, 21명 수료

일정		주제 및 강사	
1주	10/11 (금)	입학특강	인생 유 반전 고미숙 (고전평론가)
	10/11 (금) ~ 12 (토)	입학워크숍	나와 연애하기 문은희 (알트루사대표)
2주	10/18 (금)	삶	콘크리트 유토피아 박해천 (디자인연구자)
3주	10/25 (금)	복지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세상 이상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교수)
4주	10/31 (금)	통합	갈등의 대한민국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법륜 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5주	11/08 (금)	인문	네 생각대로 해, 그게 정답이야 김진혁 (전 지식채널 e PD,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11/09 (토) ~ 11/10 (일)	경주워크숍	신라 천년을 통해 오늘을 배우다 법륜 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6주	11/15 (금)	사회	돈의 인문학 김찬호 (사회학자)
7주	11/22 (금)	정치	지방지치는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꾸는가? 윤여준 (평화교육원 원장, 前 환경부장관)
8주	11/29 (금)	여성	내가 걸은만큼 내 인생이다 심상정 (국회의원)
9주	12/06 (금)	생태	인간은 생태계에서 막내다 최재천 (국립생태원장)

청년리더십아카데미

청년(靑年)!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르익은 시기

청춘(靑春)! 새싹이 파랗게 돌아나는 봄철, 인생의 젊은 시기.

사전에서 찾은 두 단어의 의미는 누구에게나 가슴 설레게 하는 단어이나 2013년 현재 우리의 청년, 청춘들은 가슴 떨리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 '여러분은 정녕 안녕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로 답해야 하는 이 시대 청년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2013년 상·하반기 두 회에 걸친 청년리더십아카데미는 상처받고 갈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청춘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또 다른 자아를 찾는 용기를 주기 위한 10주간의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다양하고 훌륭한 강사진을 통해서 세상의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고 새로운 세상을 위한 방향을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러한 시간을 통해 청년들은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의 삶이 얼마나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분열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리더십은 '통합' 이라는 것을 일깨워준 법륜 스님,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것 자체가 위험하며 '무지(無知)에 대한 지(知)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김진혁 교수, 자신이 생각의 주인이 되어야 하며 사유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홍세화 발행인, 진정한 복지란 누구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라는 오건호 실장, 우리 시대의 리더는 공공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윤여준 원장, 영감에서부터 창조가 시작된다는 박경철 원장, 뜨거워지는 지구를 구하기 위한 방법을 강조한 하승수 위원장..... 이 시대 지성들의 강연은 자신의 안위만을 돌보며 하루를 기계처럼 살고 있었던 청년들에게 삶의 방향과 가슴 속에 작은 온기를 불어 넣어 주는 촉매가 되었다.

짧다하면 짧은 시간인 10주간의 과정을 통해 청년들은 현대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자신을 꿈꾸게 되었으며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실천적 행동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제 같은 고민을 하며 같은 곳을 바라보는 청년들이 개인이 아닌 모두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시대의 첫 발걸음을 이곳에서부터 시작하려 한다.



청년리더십아카데미



제5기 청년리더십아카데미

일시 2013년 10월 1일 ~ 12월 3일 매주 화요일 19:30, 총 11주

참가자 전체 76명 등록, 68명 수료

일정		주제 및 강사	
1주	04/02(화)	입학특강	[청춘의 재발견, 시대와의 동행] 김대규 (변호사, 담임)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소개
1주	04/05(금)~07(일)	입학워크숍	[새로운 백년] 통일신라 역사를 통해 배우는 리더십
			법륜 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청년리더십아카데미 멤버십 형성 & 서울·부산팀 교류 청년리더십아카데미 수료과제 계획세우기
2주	04/09(화)	정의	[나는 시장이다 _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박원순 (서울시장)
3주	04/16(화)	힐링	[내 인생의 주인, 나로 사는 법] 보수 (정토회 법사)
4주	04/23(화)	언론	[진실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이상호 (고발전문기자)
5주	04/30(화)	정치	[2012년 그 후, 다시 정치를 말하다] 윤여준 (평화교육원 원장, 前 환경부장관)
6주	05/07(화)	교육	[우리, 살맛나는 세상을 위하여] 김제동 (방송인)
7주	05/14(화)	비전	[때려다임은 이미 바뀌었다] 박경철 (신세계연합병원 원장)
8주	05/21(화)	노동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 심상정 (국회의원)
	05/25(토)~26(일)	졸업워크숍	상상력 + 1°C 청년리아 수료과제 발표 수료 이후 새로운 실천 : Action to Movement
9주	05/28(화)	행복	[모든 존재의 행복은 나의 행복입니다] 김여진 (연기자)
10주	06/04(화)	경제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11주	06/11(화)	졸업식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청년리더십아카데미

제6기 청년리더십아카데미

일시 2013년 10월 1일 ~ 12월 3일, 매주 화요일 19:30, 총 10주
참가자 전체 65명 등록, 59명 수료

일정		주제 및 강사	
1주	10/1(화)	입학특강	[청춘의 재발견, 시대와의 동행] 김대규 (변호사,담임)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소개
	10/5(금)~6(일)	입학워크숍	[만나서 기쁘지 아니한가] 김제동 (방송인)
2주	10/8(화)	언론	[언론의 현실과 뉴스 소비자로서의 대응] 노종면 (전 뉴스타파 앵커, 전 YTN기자)
3주	10/15(화)	사회통합	[화해와 상생을 위한 통합의 리더십] 법륜 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4주	10/22(화)	특강	[생각의 주인으로 사는 법] 홍세화 (언론인, 소설가, 전 정당인)
5주	10/29(화)	창의	[모든 것을 의심하라] 김진혁 (전 지식 채널 e PD,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11/1(금)~3(일)	역사기행	[통일신라 역사를 통해 배우는 리더십]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
6주	11/5(화)	교육	[나도 복지국가에 살고 싶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실장)
7주	11/12(화)	정치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의 조건] 윤여준 (평화교육원 원장, 前 환경부장관)
8주	11/19(화)	비전	[자기혁명으로부터 세상 속으로] 박경철 (신세계연합병원 원장)
9주	11/26(화)	환경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를 구하라]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
10주	12/3(화)	수료식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부산 청년리더십아카데미

2012년 하반기에 부산 1기 청년리더십아카데미를 수료한 수강생들을 주축으로 2기 기획단이 구성되었고 강의기획, 홍보, 아카데미 운영을 이들이 준비하는 청년리더십아카데미의 특성은 부산에서도 동일하였다. 수료생들의 아카데미 운영 참여는 작은 일이라도 서로 의견을 모아 돕는다면 사회에서 결코 자신들의 발언과 위치가 작지 않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언론, 특강, 평화, 경제, 교육, 환경, 정의, 정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안을 중심으로 생생한 강연을 해주었고, 사회문제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정보를 수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였다. 강사를 초청하기에는 서울에 비해 물리적 거리감이 있는 부산에서 2기 청년리더십아카데미의 진행으로 지역사회 청년들에게 세상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게 하였고, 서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제2기 부산 청년리더십아카데미

일시 2013년 4월 3일 ~ 6월 14일 매주 금요일 19:30, 총 10주
장소 부산 YWCA 강당
참가자 전체 22명 등록, 21명 수료

일정		주제 및 강사	
1주	04/03(수)	입학특강	[청년, 새로운 100년을 꿈꾸다] 김대규 (변호사, 담임)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소개
	04/05(금)~07(일)	입학리더십	역사로부터 배우는 리더십, 미래를 깨우는 리더십
		입학워크숍	[새로운 백년] 역사를 통해 배우는 신라 통일의 리더십 법륜 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2주	04/13(토)	언론	[모든 지식에 대한 의심] 김진혁 (전 지식채널 e PD,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3주	04/19(금)	특강	[생각의 주인으로 사는 법] 홍세화 (정당인)
4주	04/25(목)	평화	[화해와 상생을 위한 리더십] 법륜 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5주	05/03(금)	경제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6주	05/10(금)	교육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닌란 말인가] 엄기호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닌란 말인가> 저자)
	05/17(금)	휴강	부처님오신날
7주	05/24(금)	환경	[다시 에너지를 고민하다] 이유진 (녹색당 정책위원장)
	05/25(토)~26(일)	졸업워크숍	상상력 + 1°C 수료과제 발표 수료 이후 새로운 실천 : Action to Movement
8주	05/31(금)	정의	[세상으로 나간 법 이야기] 금태섭 (변호사)
9주	06/07(금)	정치	[2012 그 후, 다시 정치를 말하다] 윤여준 (평화교육원 원장, 前 환경부장관)
10주	06/14(금)	졸업식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열린아카데미

16기 열린아카데미 꿈꿔라, 네가 무엇을 원하든...

해마다 열린아카데미를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고민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제시하였고, 시민들의 의식 전환의 큰 계기가 되었다.

올해는 여전히 방황하며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였다.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 꿈과 일은 멀어져만 가는데, 사랑과 연애는 어렵기만 하고...

팔꿈치로 밀어내는 무한 경쟁 속에서 도대체 성공은 뭔지?

결코 누구도 정답을 말해 줄 수 없는 청년의 문제를 열린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고민해보았다.

16기 열린아카데미

일정 2013년 6월 20일 ~ 7월 15일 매주 화요일 19:30, 5주

참가자 70명

일정	주제	강사
1주 06/20(목)	"청춘, 세상을 묻다"	김중배 (팟캐스트 이슈 털어주는 남자 진행)
2주 06/25(화)	꿈, 그리고 일 "내가 즐거우면 세상도 즐겁다"	밥장 (소셜일러스트레이터)
3주 07/02(화)	사랑 "로맨스가 필요해"	정현정 (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 작가)
4주 07/09(화)	경쟁 "팔꿈치로 밀어내는 세상, 손을 내밀다"	강수돌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5주 07/16(화)	성공 "청춘, 청춘에게 묻다"	한동현 (마이크임팩트 CEO)



기획강좌

엄마수업

한국의 교육현실은 청소년 자살증가, 학교폭력, 성적 경쟁으로 몰리는 학생들의 정신적인 붕괴로 암울하다. 이런 상황에서 엄마의 교육철학이 새삼 중요하게 생각되어진다. 아이들의 성장에 엄마가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므로 엄마의 변화 없이는 아이의 행복한 삶이 어려운 현실이다. 그래서 엄마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엄마수업〉은 평화교육원에서 처음 시도하는 엄마교육 프로그램이다. 2013년 10월 22일, 전체 5강으로 시작된 〈엄마수업〉은 폭발적인 호응으로 시작되었다. 1강 법륜 스님의 강의주제는 ‘엄마로 산다는 것은?’ 이었다. 여자가 아닌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이 한편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엄마의 역할이 아이의 행복한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각인하는 시간이었다. 2강 이보연 (아동가족상담센터 소장) 선생님의 ‘사랑이 서툰 엄마, 사랑이 고픈 아이’, 3강 이윤정 (비폭력대화 마이스터) 선생님의 ‘내 아이 비폭력대화로 사랑하기’ 를 주제로 강의가 이어졌다. 수강생들은 강의를 들으며 평소에 아이들을 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반성하고,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4강 고병헌 성공회대 교수는 아이가 자신의 시간을 살도록 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는 지적은 엄마가 좀 더 자신의 독립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었다. 5강은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로 〈엄마수업〉전체 일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었다. 한정된 시간에 엄마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많은 질문에 대한 스님의 답변으로 수강생들은 명쾌한 해답과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매 강의마다 일주간의 실천과제를 주며, 배운 것을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실천과제’ 소감을 적어보며 자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 아이의 성장 단계별 강의를 요청하는 엄마들이 많았으며, 직장인 엄마, 아빠 그리고 한 부모 가정 위를 위한 강의요청도 많았다. 그만큼 자식교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모들이 많다. ‘엄마가 행복하면 자식도 행복하다’는 대명제에 수강생 모두가 동의하며, 배운 것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게 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제기 엄마수업

일정 2013년 10월 22일 (화) ~ 11월 19일 (화) 오전 10시 30분, 5주간

장소 역삼동 문화센터

참가자 228명

일정	주제	강사
1강 10/22(화)	“엄마로 산다는 것은?”	법륜 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2강 10/29(화)	“사랑이 서툰 엄마, 사랑이 고픈 아이”	이보연 (아동가족상담센터 소장)
3강 11/5(화)	“내 아이 비폭력대화로 사랑하기”	이윤정 (비폭력대화 마이스터)
4강 11/12(화)	“아이의 희망을 만드는 부모되기”	고병헌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5강 11/19(화)	“엄마와 아이가 함께 행복해지기”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



기획강좌

시니어아카데미

100세 시대, 당신의 노후준비는 어떻습니까?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한국사회는 최근 700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일자리, 연금, 의료 등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은퇴자들은 노후의 불안정한 삶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고령화 시대 국가경제침체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제 2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 한국사회가 가야 할 새로운 대안모델을 모색하고자 시니어아카데미는 기획되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명품이 되어야 한다. 은퇴 이후 제2의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자신을 성찰하고 고민하며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시작한 김홍신 작가님의 강의를 통해 제2의 인생의 방향에 대해 수강생들은 생각할 수 있었다. 최성재 교수는 연령통합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고령화 사회에 노인에게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버리고 노인들의 재교육을 통해 그들의 경험과 장점을 살리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이형중 박사는 인생 3기를 소개하며 자기실현의 삶을 살 것을 권유하였으며 취업, 일자리, 사회봉사, 평생교육의 4가지를 함께 수행하며 살 것과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력, 원하는 바, 자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급여, 연령 등의 제한선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어 퇴직 이후 새로운 인생을 사는 3명의 강사를 통해서 각 분야에서 도전하며 보람을 느끼는 삶의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법륜 스님과 직접 즉문즉설을 통해 나이드는 법에 대한 시원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5주의 과정을 통해서 참가한 수강생들은 인생 후반전, 새로운 도전과 즐겁고 행복한 삶을 함께 꿈꿀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제1기 시니어아카데미

일정 2013년 11월 11일 (월) ~ 12월 9일 (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5주
참가자 77명

일정	강의주제	강사	
1강 11/11(월)	인생 후반전,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김홍신 (작가)	
2강 11/18(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화 사회 -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사회모델 및 정책	최성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3강 11/25(월)	일할 수 있어 행복한 노후!	이형중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	
4강 12/2(월)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	행복한 재능기부	김기진 (한국JTS 대표)
		자연으로의 귀화, 귀농	허윤행 (장수친환경영농조합 대표)
		지역사회 공헌활동	이소영 (함께하는 성북마당 대표)
5강 12/9(월)	[즉문즉설] 나이드는 법	법륜 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평화운동

대통령 취임 직전 이루어진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내건 박근혜 정부에게 남북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첫 도전이었다. 신뢰프로세스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하기도 전에 이미 막힌 대로 막힌 남북관계는 더 꼬여가고, 남북한 군사적 긴장위기까지 더 높아졌다. 6월 들어 남북 당국간 회담으로 풀릴 듯하던 실마리는 '격 논란'으로 무산되고 급기야는 개성공단 철수위기까지 날을 정도였다. 이에 평화재단이 실무 지원을 하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모임]은 8월 7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며"라는 종교인기자 회견을 마련했다. 다행히 바로 다음날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팍막혔던 남북관계의 답답한 숨통이 조금은 풀어졌다.

남북관계의 안정적 전개를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합의된 국민여론이 절실히 필요하고 있었기에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사회지도층 인사들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선언문」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수차례의 논의를 바탕으로 6월 19일 발표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선언문」은 남남갈등의 해결과 사회적 합의가 안정적 남북관계를 만들어내는 초석임을 사회적으로 알렸다. 남북간의 교류협력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한반도 비핵화,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개선대책 강구, 대북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남북간의 민간경제교류협력 등 6개항의 기본원칙은 7월 2일 국회본회의에서도 여야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결의안"으로 통과되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통일코리아 건설로 새로운 민족의 중흥을 열어가고자 하는 통일의 열기는 평화리더십아카데미와 여성리더십아카데미 졸업생을 중심으로 하여 만들어진 [통일의병]으로 탄생되기도 하였다. 40,50대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통일의병]은 새로운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시민들의 모임으로, 공공성과 헌신성, 백의종군의 의병정신으로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한다.

새로운 백년을 열어가는 청년포럼은 보다 안정적인 전국적 네트워크로 발전해가면서 <새로운 백년 청년학교>와 <새로운 백년 북콘서트>, <현장탐방활동>, <동북아워크숍>, <통일독일탐방단>등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높이고, 현장에서 자각하며 자신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청년포럼

새로운 백년을 열어가는 청년포럼은 평화재단의 진취적인 청년세대 네트워크로서 결성된 지 2년이 되었다. 2011년 세대와 계층을 아울러 한국사회에 희망과 공감의 메시지를 전하고, 소통과 토론의 열린 공간을 제공한 '희망공감 청춘콘서트'의 주역, 청년서포터즈가 주축이 되어 시작한 청년포럼은 짧은 시간에 전국적인 청년 네트워크로 발전하였다. <새로운 백년 청년학교>는 5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청년학교의 배움을 <청년콜로키움>으로 이어가며, 청년학교 수강생들은 <새로운 백년 북콘서트>의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자기배움을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값진 경험을 하였다. 또한 2013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현장탐방활동>을 통해 우리사회의 갈등과 아픔이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고 듣고 느끼는 수업을 통해 사회적 연대와 사회통합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 것은 큰 성과이다. 통일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세대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동북아역사워크숍>을 통해 한민족 통일의 역사적 필요와 교훈을 배웠다면, <통일독일탐방단>을 통해 통일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었다. 전국 100여명의 헌신적인 청년들이 자신들이 가진 시간과 재능과 돈을 조금씩 나누어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이라는 새로운 청년세대의 문화와 공동체를 일구어가는 초석을 다진 청년포럼의 한 해였다. 2014년 청마의 해, 청년의 기상과 푸르른 희망으로 무장한 청년활동가들의 활약을 기대해 볼 만 하다.



청년포럼

새로운 백년 청년학교

'깨어있는, 함께하는, 실천하는 청년공동체'를 지향하며 청년들의 인생관, 사회관, 시대관, 실천론의 4가지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시작하여, 전국 6개 지역에서 3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청년학교 수료생들이 졸업작품의 의미를 담아 새로운백년 북콘서트 서포터즈를 주도하는 참여 모델이 자리잡았다.

제1기 청년학교

일시 2013년 3월 20일 ~ 6월 2일, 11주
 장소 서울, 대전, 대구, 울산, 부산, 창원 6개 지역
 수료 총 149명 수료

구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창원	전국
입학정원	82	30	23	35	34	16	220
수료인원	52	21	17	12	30	10	149

커리큘럼

일정	커리큘럼	커리큘럼
입학 3월 4주	입학식	법륜 스님 입학특강(영상강좌)
3월16~17일	첫걸음워크숍	인생나누기 워크숍 "친해지길 바래"
1강 3월 5주	인생관 1	'방향해도 괜찮아, 「스님의 주례사」 그룹세미나
2강 4월 1주	인생관 2	마음공부특강 "자유로운 삶"
3강 4월 2주	시대관 1	'새로운백년(역사편)', 열린세미나
4강 4월 3주	시대관 2	'새로운백년(미래편)', 열린세미나
5강 4월26일~28일	디딤돌워크숍	경주역사탐방
6강 5월 1주	사회관 1	이슈&쟁점특강 "우리사회의 이슈와 대안"
7강 5월 2주	사회관 2	'정점을 파하다(정치경제편)', 그룹세미나
8강 5월 3주	사회관 3	'정점을 파하다(사회문화편)', 그룹세미나
9강 5월 4주	실천론	법륜 스님 영상강좌
수료 6월 1~2일	청년캠프	법륜 스님 특강 워크숍 "수료식"



제2기 청년학교

일시 2013년 9월 4일 ~ 11월 16일, 10주
 장소 서울, 대전, 대구, 울산, 부산, 창원 6개 지역
 수료 총 166명 수료

구분	서울 주간	서울 야간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창원	전국
입학정원	13	85	30	24	37	33	13	235
수료인원	10	54	24	16	28	25	9	166

커리큘럼

일정	커리큘럼	커리큘럼
1강 9월 2주	입학식	입학특강 '새로운 인생, 새로운백년'
2강 9월 3주	첫걸음워크숍	인생나누기 워크숍 '친해지길 바래'
3강 9월 4주	인생관 1	'방향해도 괜찮아' 열린세미나
4강 10월 1주	인생관 2	'행복한 출근길' 열린세미나
5강 10월 2주	시대관 1	'새로운백년 '역사편' 열린세미나
6강 10월 3주	시대관 2	'새로운백년 '미래편' 열린세미나
7강 10.24~26	디딤돌워크숍	법륜 스님과 함께하는 '경주역사탐방&특강'
8강 11월 1주	사회관	'우리시대의 이슈와 대안' 특강
9강 11월 2주	실천론	'자기실현과 사회참여' 특강
10강 11월 3주	책거리	수료에세이 나누기 · 선물교환
수료 11.16	수료워크숍	법륜 스님과 함께하는 '수료식&특강'

새로운 백년 북콘서트

‘가슴뛰는 통일이야기, 새로운 100년’ 도서 발간을 계기로 2012년부터 시작된 새로운백년 북콘서트는 올해로 총 22회 (2013년 총 10회 진행)를 거치며, 통일담론을 지역사회의 시민들과 청년들에게 소통하고 토론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청년서포터즈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참여의 좋은 모델사업이 되었다.

1) 프로그램 내용 및 형식

사회자 인사
사전영상
문화공연
오프닝 영상
법륜 스님 소개 영상
오연호대표 _ 여는 이야기
법륜 스님 등장 _ 대담 시작
질의응답
함께 부르는 노래(우리의 소원)
공지사항
퇴장(모금/사인회/책판매)



2) 세부일정 및 내용

기간 2013년 6월 4일 ~ 12월 6일

강연회수 10회

참가자 총 4376명, 1회 평균 참가자수 약 440명

총 서포터즈 수 490명

회수	날짜	지역	장소	참가자수	서포터즈 수(명)
1	06/04(화)	대전	충남대 정심화홀	509	50
2	06/05(수)	울산	현대자동차문화회관	310	38
3	06/07(금)	대구	경북대 글로벌프라자	355	46
4	06/09(일)	부산	동아대 석당홀	410	77
5	07/02(화)	서울	서초구민회관	690	80
6	11/25(월)	광주	전남대 컨벤션홀	448	36
7	11/28(목)	청주	서원대 미래창조관	176	31
8	11/29(금)	부산	부산대 1016기념관	391	50
9	12/05(목)	서울	서초구민회관	690	50
10	12/06(금)	창원	교통문화연수원	397	32

새로운 백년을 열어나가는 현장탐방활동

‘교실에서 현장으로!’ 를 모토로 2013년 새롭게 진행된 현장탐방 활동은 청년들이 사회현안과 이슈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사회갈등의 현황과 원인을 공부하고,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문제해결의 방향과 대안을 모색해 보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13회 진행되는 가운데 400여명의 전국에서 모인 청년들이 참여하였다.

일정 2013년 4월 14일 ~ 11월 30일까지 (월 1~2회 진행)

참가 연인원 400여명 (평균 30명)

1) 프로그램 내용 및 형식

일정	주제	장소	참가자 (수)	안내 (활동가)	이슈특강
1차 서울 04.14(일)	환경	내성천물빛풀빛길음 (영주댐건설현장)	47명	지울스님	-
2차 서울 05.12(일)	노동	하루만에 걷는 서울노동이슈둘레길 (대학교-청계천-시청)	32명	황창훈(재능노조) 고동민(생용차노조)	김진숙 (민주노동부신지도위원)
3차 서울 06.15(토)	통일	새터민과 함께하는 강화도역사기행	41명	이승용	황규성
4차 전국 07.13(토)~14(일)	환경	밀양 할배, 할매와 함께하는 노임팩트맨	60명	-	하승수 (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
5차 서울 08.24(토)	역사	서울독립운동유적둘레길 (서대문-광화문)	28명	오세운 (역사교사모임)	-
6차 서울 09.28(토)~29(일)	환경	모래강 내성천 지키기 액션 (영주댐건설현장)	10명	지울스님	-
7차 전국 10.05(토)~06(일)	환경	밀양 할배, 할매와 함께하는 가을농활 (동화)	50명	이계삼 (밀양 대학위사무국장)	-
8차 서울 10.06(일)	주거	뉴타운 허허벌판탐방 (용산-북아현)	24명	이원호(용산대책위사무국장) 이선형(북아현뉴타운철폐농성)	-
9차 전국 10.19(토)~20(일)	환경	토닥토닥 밀양 가을농활 (모정)	45명	이계삼 (밀양대책위사무국장)	-
10차 서울 11.09(토)	인권	당신이 모르는 '위안부' 이야기	25명	안신권 (나눔의집소장)	-

11차 대구 11.9(토)	환경	내성천물빛풀빛길음	내성천 (영주댐건설현장)	5명	지울스님	-
12차 대전 11.10(일)	역사	독립운동, 근현대사를 바라보다	천안독립기념관	20명	-	-
13차 서울 11.30(토)	공동체	응답하라! 마을공동체	홍성 흥동면 갯골일대	31명	주형로 (마을활력소대표)	-





새로운 백년을 열어가는 해외탐방활동

복지국가(양극화 해소), 통일코리아, 동아시아공동체의 건설은 새로운 백년의 청사진이자 세계평화의 주춧돌이다. 한국의 청년들이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통일코리아의 국가 모델을 견학함으로써 통일 미래의 상상력을 키우는 일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동북아역사워크숍, 통일독일탐방을 진행하였다.

1기 동북아청년탐방단

일정 2013년 7월 3일 ~ 7월 7일까지 (4박 5일 일정)
참가 41명 (청년포럼 30명, 청년리더십아카데미 11명)
내용 고구려 · 발해 · 백두산천지 유적답사 및 역사 · 통일 강의와 토론

1기 통일독일청년탐방단 (답사팀)

일정 2013년 11월 17일 ~ 11월 23일까지 (6박 7일 일정)
참가 3명

프로그램

- (1) 재단방문 : ①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②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③ 기억 · 책임 · 미래 재단
- (2) 정당방문 : ① 녹색당 ② 해적당 ③ 좌파당 ④ 시민당 청년그룹 JUSO
- (3) 인 터 뷰 : ① 크리스티앙 뤼러 목사(니콜라이교회) ② 홀가 트루만 목사(프라우엔 교회) ③ 홀리처 여사(라이프치히 시민위원회)
- (4) 역사현장 : ① 베를린장벽 기념공원 ② 유대인학살기념공원(유대인박물관) ③ 슈타지박물관 ④ 시민운동기록보관소 ⑤ 외들라이트 국경박물관
- (5) 환경대안 : ① 그뤼네스반트(독일의 DMZ) ② 에너지재공공화프로젝트 인터뷰 ③ 원헨 이 자르강 (생태하천 복원)

청년콜로키움

청년학교 수료생을 중심으로 행복멘토링, 다큐세미나, 그룹세미나, 이슈특강, 활동가이야기 등 다양한 방식과 주제를 통해 청년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고 대화하는 일상사업으로서,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6개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일시 2013년 9월 25일(수) ~ 2013년 12월 11일(수)

장소 평화재단 3층 강당

진행 내용

PART 1			
1강	09/25(수)	오픈특강	작가 노희경, 가을에 사랑을 묻다 노희경(드라마 작가, JTS 홍보대사)
2강	10/02(수)	행복멘토링	'사랑? 진로?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스님 즉문즉설 (영상강의)
3강	10/09(수)	다큐세미나	북한, 생사의 갈림길 '천국의 국경을 넘다' EBS 다큐프라임
4강	10/16(수)	휴먼 라이브러리	새터민에게 듣는 생생한 북한이야기 청년새터민&이새름(좋은벗들 탐장)
PART 2			
1강	10/30(수)	행복멘토링	청춘,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기 법륜 스님 즉문즉설 *영상강의
2강	11/06(수)	다큐세미나	친환경수도 스톡홀름의 비밀 SBS 특집다큐
3강	11/13(수)	환경특강	4대강, 끝나지 않은 이야기 최병성 목사(환경 활동가)
PART 3			
1강	11/27(수)	에버트재단 초청특강	통일독일에서 한국의 미래를 그리다 크리스토프 풀만 소장
2강	12/04(수)	발표회	독일해외탐방, '청년, 통일독일을 인터뷰하다' 독일해외탐방팀
3강	12/11(수)	다큐세미나	행복에 이르는 10단계



희망세상만들기 강연회

2012년 전국 시·군·구 300강 강연에 이어 2013년에도 전국을 다니며 희망세상만들기 100회 강연이 진행되었다. 개인이 가지는 성격, 진로, 학업과 취직 문제에서부터 가족 공동체의 정서적 유대 약화와 그를 지탱하는 물적 기반 축소,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고용, 교육, 조세, 정치 현안과 통일 문제에 이르기까지 질문의 폭은 참으로 다양하였다. 모든 강연장은 바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이 겪는 일상의 대화 공간이면서, 소통 속에서 문제가 풀리고 해답을 찾는 체험 학습장이었다. 나아가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자각하고 개인의 실천 의지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다짐하는 사회적 공동선 실현의 현장이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스님은 '인생수업'이라는 베스트셀러 저서 출판과 함께 유튜브와 카카오톡 등 온라인에서 활동의 폭을 넓혀나가고 있다. 그런 높아진 인지도는 해외에서 진행한 희망강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시아, 유럽, 북미주 여러 지역에서는 교포들과 함께 현지 주민들과 젊은 학생층이 다수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한국 사회와는 다른 여러 문제로 고민하고 있거나 나아가 인류평화, 환경파괴, 문명전환의 주제까지 넘나드는 질문을 던지는 열띤 분위기를 보였다.

1) 전체 일정 및 내용

기간 : 2013년 3월 20일 ~ 12월 6일

강연 횟수 : 총 87회

참가자 수 : 총 63,515명 (1회당 730명 참가)

총 자원봉사자 수 : 4,145명 (1회당 4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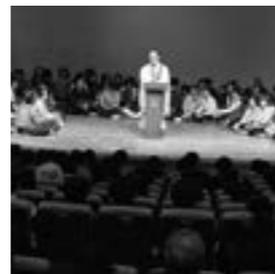


상반기 희망강연 현황

순서	날짜	요일	시간	일반현황		참가현황		봉사자
				행사지역	좌석수	참가자	참가율	
1	3/20	수	10:30	서울도봉구민회관	600	900	150%	43
2	3/20	수	19:00	수원장안구민회관	500	750	150%	50
3	3/22	금	10:30	부산중구청대회의실	350	510	146%	40
4	3/22	금	19:00	거제청소년수련관	404	489	121%	52
5	3/25	월	10:30	충북 충주KBS공개홀	500	524	105%	47
6	3/25	월	19:00	충북대 개신문화관	719	1,000	139%	54
7	4/5	금	10:30	부산정관 주민자치회관	300	460	153%	50
8	4/5	금	19:00	마산MBC경남홀	1,170	730	62%	73
9	4/8	월	10:30	안양시청 강당	780	900	115%	65
10	4/10	수	10:30	인천시청 강당	415	628	151%	50
11	4/10	수	19:00	서울시립대총학생회	1,374	450	33%	65
12	4/11	목	10:30	노원구민회관	748	1,300	174%	80
13	4/11	목	19:00	전주시청 강당	480	570	119%	42
14	4/12	금	10:30	김천 문화원	305	300	98%	42
15	4/12	금	19:00	수성대학교대강당	630	860	137%	81
16	4/15	일	19:00	동국대백주년기념관대강당	490	720	147%	49
17	4/22	월	10:30	서대문문화체육회관	589	601	102%	69
18	4/22	월	19:00	남양주시청 다산홀	400	600	150%	55
19	4/24	수	10:30	포항시청 대강홀	596	670	112%	55
20	4/24	수	19:00	부산북구빙상센터문화예술회관 2층	324	602	186%	53
21	4/29	월	10:30	청주고인쇄박물관	294	508	173%	40
22	4/29	월	19:00	대전시청대강당	634	1,050	166%	68
23	5/1	수	10:30	시민문화여성회관(신부분관)	998	590	59%	48
24	5/1	수	19:00	부평구청대회의실	362	800	221%	55
25	5/3	금	10:30	성남시청은누리관	600	1,200	200%	60
26	5/3	금	19:00	송파구민회관	607	760	125%	60
27	5/6	월	10:30	경남과기대100주년 기념관	673	780	116%	52
28	5/6	월	19:00	순천문화예술회관	914	593	65%	53
29	5/8	수	10:30	강남구민회관	516	650	126%	70

희망세상만들기 강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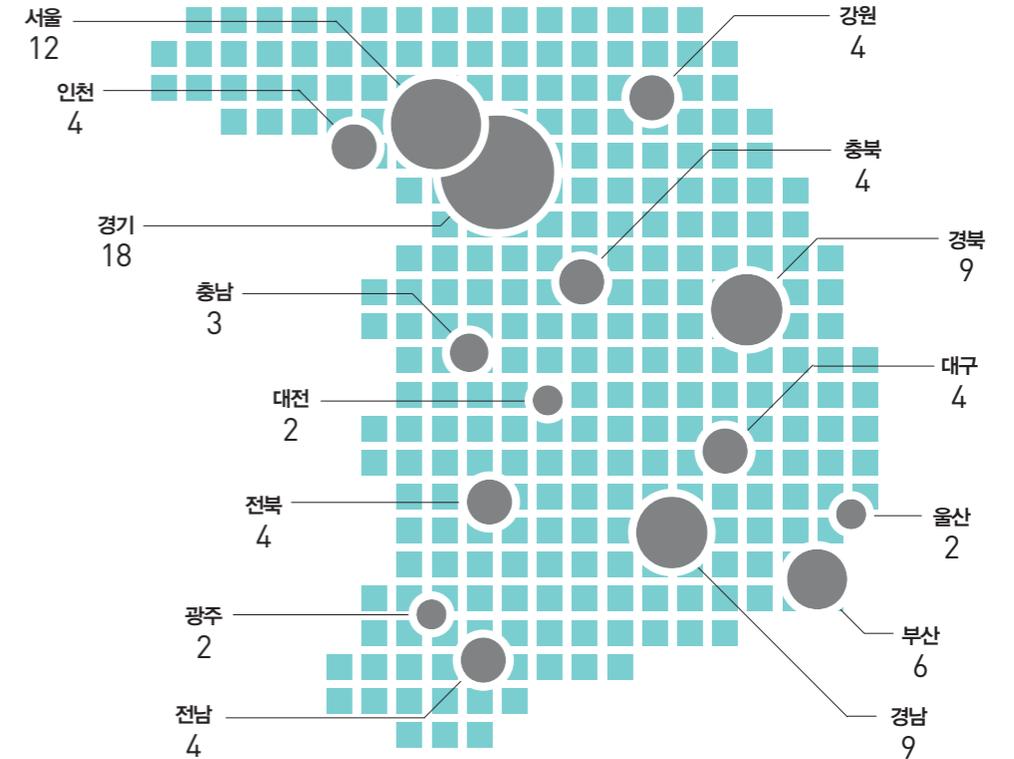
순서	날짜	요일	시간	행사지역	좌석수	참가자	참가율	합계
30	5/10	금	10:30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410	392	96%	36
31	5/10	금	19:00	광주시청대강당	636	1,120	176%	54
32	5/22	수	15:00	동대문구청	500	800	160%	30
33	5/22	수	19:00	서초구민회관	783	794	101%	40
34	5/23	목	19:30	포항시청문화홀대강홀	596	575	96%	40
35	5/24	금	10:30	부산기장군청대강당	387	618	160%	57
36	5/28	화	19:00	부산대학생회관	720	557	77%	58
37	5/29	수	10:30	용인수지여성회관	607	800	132%	60
38	5/29	수	19:00	치악예술관	660	736	112%	50
39	5/30	목	15:00	고양시여성회관	406	531	131%	58
40	5/30	목	19:00	광명시 시민회관	550	727	132%	41
41	5/31	금	10:30	창원시청시민홀	594	885	149%	50
42	5/31	금	19:00	울산삼산근로자복지회관	352	402	114%	48
43	6/3	월	10:30	수성대학교강당	630	830	132%	72
44	6/3	월	19:00	문경문화예술회관문화아트홀	310	495	160%	59
45	6/5	수	10:30	춘천교육문화관	570	383	67%	52
46	6/7	금	10:30	김해시청	400	670	168%	50
47	6/17	월	10:30	양천 해누리타운	514	720	140%	55
48	6/18	화	10:30	파주 운정행복센터	546	730	134%	50
합계					27,443	33,260	121%	1,711



희망세상만들기 강연회

하반기 희망강연 현황								
일반현황				참가현황			봉사자	
순서	날짜	요일	시간	행사지역	좌석수	참가자	참가율	합계
1	10/14	월	10:30	충북대학교개신문화관	719	660	92%	55
2	10/14	월	19:30	전남대컨벤션홀	500	578	116%	39
3	10/16	수	10:30	서울동작문화원	539	600	111%	60
4	10/16	수	19:00	성남아트센터오페라하우스	1,804	1,760	98%	160
5	10/21	월	10:30	원광대학교학생회관대강당	1,200	400	33%	32
6	10/23	수	19:30	의정부농협기능지점대회의실	571	650	114%	63
7	10/25	금	10:30	안동과학대학교학계도서관	400	450	113%	57
8	10/25	금	19:30	KBS창원홀	1,800	1,139	63%	94
9	10/27	일	19:00	동국대백주년기념관대강당	490	550	112%	39
10	10/28	월	10:30	여수시민회관	974	790	81%	53
11	10/28	월	19:00	덕진예술회관	487	670	138%	40
12	10/30	수	10:30	안산올림픽기념관	420	490	117%	52
13	10/30	수	19:30	아주대올곡관대강당	483	603	125%	44
14	11/1	금	10:30	울산북구자동차문화회관	450	655	146%	51
15	11/1	금	19:30	수성대학대강당	630	689	109%	54
16	11/4	월	10:30	서울강서구민회관	609	916	150%	65
17	11/6	수	10:30	용인시청에이스홀	600	900	150%	51
18	11/6	수	19:30	인천대학교공연장	430	410	95%	53
19	11/8	금	10:30	대구야양아트센터	1,185	1,045	88%	72
20	11/8	금	19:00	김해문화체육관	1,500	1,190	79%	77
21	11/11	월	10:30	대전시청	650	923	142%	80
22	11/13	수	10:30	은평문화예술회관	701	1,000	143%	65
23	11/13	수	19:00	안양아트센터	1,127	1,139	101%	80
24	11/15	금	10:30	진주과기대백주년기념관	680	728	107%	60
25	11/15	금	19:00	부산KBS홀	2,847	2,500	88%	130
26	11/18	월	10:30	강릉단오문화관	453	490	108%	51
27	11/18	월	19:00	춘천한림대일송아트홀	780	516	66%	55
28	11/20	수	10:30	경기구리시청	450	700	156%	60
29	11/20	수	19:00	경기고양문화회관	470	623	133%	88

순서	날짜	요일	시간	행사지역	좌석수	참가자	참가율	합계
30	11/22	금	10:30	마산MBC	1,170	708	61%	74
31	11/22	금	19:00	포항문화예술회관	972	900	93%	45
32	11/24	월	10:30	군산대아카데미홀	850	530	62%	50
33	11/27	수	10:30	인천부평아트센터	788	737	94%	68
34	11/29	금	10:30	구미민방위교육장	513	640	125%	52
35	12/2	월	10:30	광주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402	510	127%	50
36	12/2	월	19:00	충남대백마홀	450	407	90%	48
37	12/4	수	10:30	수원시청대강당	378	736	195%	50
38	12/4	수	19:00	부천복사골문화센터	626	823	131%	63
39	12/6	금	10:30	공주대학교	680	500	74%	54
합계					30,778	30,255	98%	2,434



해외순회강연 및 정책교류 활동

1) 해외순회강연

기간 : 2013년 01월 28일 ~ 10월 19일

강연 횟수 : 총 46회

참가자 수 : 총 12,255명 (1회당 260명 참가)

지역 : * 아시아 : 7강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중국, 미얀마,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 유럽 : 8강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 북미주 : 31강 (미국, 캐나다)

2) 해외 정책교류 활동

미국 워싱턴 방문 : 3회

중국 방문 : 8회

캐나다 세계한민족대회 : 1회



해외순회강연

2) 구체적인 일정 및 내용

	일시	지역	장소	참가자수
1	1/28	태국 방콕	자스민호텔	100
2	3/14	캄보디아 프놈펜	프놈펜 왕립대학	100
3	3/3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임페리얼 골프 클럽하우스	300
4	4/17~4/20	미국 뉴욕맨하탄	맨하탄 유니온신학대	200
5	5/5	중국 베이징	원불교교당	40
6	6/15	싱가폴	싱가폴 한국국제학교 강당	300
7	6/20	미국 LA 오렌지카운티	Holiday Inn	400
8	6/21	미국 샌프란시스코	버클리 대학 Sutardja Dai Hall	200
9	6/22	미국 시애틀	Carco Theatre	280
10	6/23	캐나다 밴쿠버	Confederation Center	200
11	6/30	미얀마 양곤	INYA LAKE HOTEL	120
12	8/22	필리핀 마닐라	마닐라정토법당	230
13	9/2	미국 시애틀	Carco Theatre	320
14	9/3	캐나다 밴쿠버	Croatian Cultural Centre	420
15	9/5	미국 샌프란시스코	St. Thomas Episcopal Church	300
16	9/6	미국 로스앤젤레스	예수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600
17	9/7	미국 LA 오렌지카운티	Holiday Inn Buena Park	490
18	9/8	미국 샌디에고	James Madison High School	295
19	9/9	미국 라스베이거스	도서관	275
20	9/10	미국 미네아폴리스	미네소타대학	180
21	9/11	캐나다 토론토	토론토한인회관	550
22	9/12	미국 트로이	폴란드인 문화회관	200
23	9/13	미국 콜럼버스	First U U Church	190
24	9/14	미국 아틀란타	Northview High school	450
25	9/15	미국 휴스턴	쉐라톤호텔	200
26	9/16	미국 텍사스A&M	Texas A&M 강의실	100
27	9/16	미국 달라스	달라스한인성당	700
28	9/17	미국 잭슨빌	Everbank Auditorium	86
29	9/18	미국 듀크대학	듀크대학 예배실	220
30	9/19	미국 프린스턴대 외국인강연	프린스턴대학 채플	80

	일시	지역	장소	참가자수
31	9/19	미국 뉴욕	쉐라톤 호텔	550
32	9/20	미국 예일대 외국인강연	예일대학교 채플	25
33	9/20	미국 보스턴	하버드대학교 Science center	320
34	9/21	미국 뉴저지	파인플라자	530
35	9/22	미국 버지니아	NOVA 전문대학 Ernst 극장	430
36	9/23	미국 워싱턴 American Univ. 외국인강연	학생회관내강연장	140
37	9/24	미국 메릴랜드	St. John's Church	350
38	10/4	독일 프랑크푸르트	SAALBAU Volkshaus Sossenheim	180
39	10/5	독일 베를린	베를린 자유대학 H?rsaal 2	190
40	10/6	독일 함부르크	BGH	70
41	10/7	독일 뒤셀도르프	뒤셀도르프 한인교회	170
42	10/8	프랑스 파리	MDM 강당	220
43	10/9	스위스 베른	베른 프랑스코회	90
44	10/10	이탈리아 밀라노	Scuola Rudolf Steiner 학교 극장	110
45	10/11	독일 뮌헨	Z?richer Str.80	104
46	10/19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대학교	Footbridge Theatre	600



종교인 모임

지난 몇 년 동안 얼어붙은 남북관계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굶주리는 북녘 동포들에게 어떻게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 할 것인가가 1년 내내 화두였다.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골 깊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종교인의 역할로 삼아 보고자 했다. 상반기에 4차례, 하반기에 5차례의 모임, 1차례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7월은 그나마 경색된 남북관계의 끈으로 작용했던 개성공단 폐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되었을 때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며' 사회적 여론을 모아보고자 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이 시대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의 역할을 다 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1) 프로그램 내용 및 형식

차수	일시	주제
19차	2013. 3. 15(금)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염원하며
20차	2013. 4. 30(화)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염원하며
21차	2013. 5. 29(수)	정세 공유 및 종교인의 역할
22차	2013. 6. 28(금)	국민통합 선언문 발표에 대한 반응과 이후 활동 방향
23차	2013. 8. 3(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논의
24차	2013. 8. 26(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 하기 위한 논의
25차	2013. 9. 30(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 하기 위한 논의
26차	2013. 11. 12(화)	현 상황에서 종교인들의 역할
27차	2013. 12. 11(수)	대북 인도적 지원의 물꼬 트기와 사회 개혁과 정의, 평화에 대한 종교인의 역할

2) 주요활동

기자회견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기자회견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며"

일시 2013년 08월 07일(수)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참가인원 기자 27명 외 일반인 250명 참가

3) 참가자

김대선 (원불교 교정원 문화사회부장)

김명혁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강변교회 원로목사)

김홍진 (천주교 쑥고개 성당 주임신부)

법 루 (평화재단 이사장, 정토회 지도법사)

박경조 (전 대한성공회 서울대학교 교구장)

박남수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박종화 (경동교회 당회장,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인명진 (갈릴리교회 담임목사)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위원회



2013년도 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3. 01. 01 ~ 2013. 12. 31)

수입

단위 : 원

계정과목	금액	비고
후원금	699,451,429	정기후원금, 일시후원금, 모금 등
교육수강료	159,954,547	리더십아카데미, 열린아카데미 등
기타수입	29,502,134	인세, 이자, 잡이익 등
수입 합계	888,908,110	

지출

단위 : 원

계정과목	금액	비고	
목적사업비 ①	연구사업	61,826,370	심포지엄, 전문가포럼, 전문가모임 등
	교육수익사업	106,810,980	리더십아카데미, 열린아카데미 등
	평화네트워크	123,913,474	희망세상만들기, 평화운동사업, 청년포럼 등
	해외정책교류	4,373,820	해외정책교류사업
	홍보비	16,985,500	홈페이지 제작, 후원회원관리 등
	소계	313,910,144	
경상비 ②	운영비	282,616,995	임차료 및 관리비 외 운영비
	소계	282,616,995	
③	지출합계(①+②)		
④	차기년도 이월	292,380,971	
지출합계(③+④)		888,908,110	

고문

서영훈 |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상임대표
오 현 | 백담사 회주

지도위원

김명혁 | 한국복음주의 협의회 회장
백낙청 | 서울대 명예교수
문규현 |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
윤여준 | (사)나를 만나는 숲 상임대표
도 법 | 대한불교조계종 자성과 쇄신을 위한 결사추진 본부장
스티브 린튼 | 유진벨 재단 이사장
김형기 |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교수

이사

김홍신 | 소설가, 중앙선관위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원장
조 민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영수 |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권영경 | 통일교육원 교수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고경빈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이사장

법륜 | 정토회 지도법사

감사

김기진 | 사단법인 JTS 대표, 건양대학교 겸임교수
여영학 |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총장

노옥재 | 평화재단 사무총장

연구위원

평화체제구축과 통일방안연구 전문가모임
조성렬(최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김학린(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초빙교수), 송영훈(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신정화(동서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이문기(세종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이승열(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장용석(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북한현실의 이해와 연구 전문가모임

김영수(최장,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길정우(19대 국회의원), 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도행(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이웅선(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운영위원장),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정철(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남북화해와 북한인권개선 연구 전문가모임

윤여상(최장,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고경빈(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김원식(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박홍순(선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손현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오경섭(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이희영(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인성(북한인권센터 연구원), 임순희(북한인권센터 연구원)

통일을 위한 평화법제 연구 전문가모임

박정원(최장, 국민대 법대 교수), 김성훈(김성훈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서진(법무법인 정민 변호사), 심재철(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검사), 여영학(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윤복남(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윤영환(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이경주(인하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남북통합을 위한 북한개발협력 연구 전문가모임

임을출(최장, 국민대 법대 교수), 권영경(통일교육원 교수), 권태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영봉(한반도발전연구원 원장), 송태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이영훈(SK경영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신진 전문가모임

이영훈(최장, SK경영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송영훈(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최용환(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윤철기(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무철(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봉영식(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백범석(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용석(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이근영(중앙대학교), 이상숙(동국대학교 북한학 교수), 홍민(동국대학교 북한학 교수), 최지영(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원), 황규성(한신대학교 연구원)

자원봉사자

사무국

노옥재, 백혜은, 김경희, 최말순, 김승정, 이승용, 김나영, 최정연, 이영재, 정휘정, 김기숙, 윤영화, 이광희, 박지현, 이원경, 김지원, 김막순, 신선영, 조완철

연구원

이새롬, 박정태, 조수현, 강혜연, 고옥길, 권이현, 김세리, 민도연, 박경미, 박지윤, 송여진, 이선행, 정진선, 최효정

교육원

공혜경, 김영주, 김유라, 박영숙, 박연화, 신아영, 안명애, 이미은, 조은영, 진미란, 최희선, 정인미, 송경아, 서은실, 박은혜, 윤보라, 안여옥, 엄철웅, 유정심, 김지연, 백흥미, 안성진

청년포럼

오태양, 정은실, 최보미, 서영현, 노숙경, 이주현, 이승현, 우인철, 권종률, 이동하, 강서희, 김정윤, 권미정, 손주희, 전은영, 정선경, 임효정, 김태형, 최지선, 김소희

평화재단 후원회원 되기

나의 참여는

평화연구를 깊이 있고 풍성하게 합니다.
다양한 평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평화문화를 확산시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나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평화로운 미래로 되돌아옵니다.

온라인 이용신청 | 평화재단 홈페이지 후원회원 가입
www.peacefoundation.or.kr

후원계좌 : 국민은행 484201-01-154897 재단법인 평화재단

평화나눔 회원은 평화재단이 주최하는 포럼, 심포지엄, 아카데미 등
각종 행사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평화재단 후원회원이 되시면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02-581-0581 (후원회원 담당자) | support@peacefoundation.or.kr